

가사노동 가치화, 가족 내 호칭도 수정

한국 정부가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무급 가사노동을 가치화하고, '도련남'과 '처남'으로 대비되는 성차별적 가족 호칭을 개선한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결정하는 시기도 혼인신고 때에서 자녀출생 때로 확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돕는 취지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 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난 3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전날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해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실현을 위한 사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가족정책 로드맵으로 3차 계획은 2015년 만들어졌다.

우선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 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여성이 주로 담당하던 집안 일은 오래도록 '노동'으로 인식되지 못했으며, 전업주부는 여전히 대학생이나 수험생과 함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가사·돌봄 노동 시간도 여성이 3시간 13분으로 남성(41분)의 5배 수준으로 높다.

가족 내 성차별적인 호칭 문제도 개선한다. 2016년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남편의 동생을 '도련남'이나 '아가씨'로 높여 부르는 데 반해, 아내의 동생은 '처남', '처제'로 부르는 것에 대해 응답자

의 65%가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부계에 친할 친(親)자를 붙여 친가라고 부르고, 모계를 바깥 외(外)자를 써서 외가라고 부르는 것이나, '시아머니, 시아버지'와 '장인, 장모'도 개선돼야 할 호칭으로 꼽힌다.

아울러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시점을 혼인신고 때에서 자녀 출생 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에서 친부가 자녀의 존재를 알게 되더라도 아동의 성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부 가정의 아동들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출생 신고서에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해 표기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주민등록표에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시도 삭제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관련한 불합리한 법과 제도적인 차별 사항을 없앤다는 취지다.

인간배아 연구 등 규제완화 추진

한국 정부가 '인간 배아'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한 규제를 푸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 심의를 보류시킨 했으나, 규제 완화에 따른 생명윤리 훼손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치료 역시 암이나 유전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에 한해서만 허용되는데, 아예 질환 제한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도 나왔다. 유전자 치료란, 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정보를 담은 디엔에이(DNA)를 바이러스에 주입한 뒤 이를 다시 몸 안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펠리스 강남 호텔에서 1차 정기회의를 열어, 유전자 치료 연구, 소비자가 비의료기관에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 3가지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제도 개선안에는 생명윤리법의 관련 제한규정을 삭제하거나 연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전자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디엔에이만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 등 첨단기술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과학계와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생명윤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혈압, 탈모 등 12개로 제한된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을 피부미용, 다이어트 등 '웰니스'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대신 정부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배아 연구다. 생명윤리법에는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 배아'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는 연구의 경우, 다발경화증 등 22종의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유전자 치료나 배아 연구는 사회적으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인데 민관협의체에서도 의견을 확정하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위원들과의 재논의를 거쳐 다시 위원회에 안전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에 배아를 활용한 연구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다. 이번에 정부는 연구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질환 허용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